

# 해외단기연수·교육보고서

## I. 연수 개요

1. 연수자 : 최영신 선임연구위원

2. 연수기간 : 2022년 12월 12일 - 2023년 1월 18일(38일)

3.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미국, 마노아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Center for Korean Studies/the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 4. 연수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 관련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확산

- 그동안 연구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및 범죄발생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 등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와 성과를 마노아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에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함.
-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 관련 연구결과와 성과는 향후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법의식 및 법 관련 태도 등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마노아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는 해외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한국학 기관으로서 1972년에 설립되어 한국학의 국제적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해왔음. 한국학연구소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연구원의 위상을 드러내고, 형사정책 및 법무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및 인권보장’ 관련 공동연구 모색
  - 한국학센터의 백태웅 소장은 법학자로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온 전문가이므로 공동연구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및 인권보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슈를 탐색하고, 공동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함.
  - 백태웅 소장은 2015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WGEID)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표하는 독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음. 특히 남북한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및 사회적응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개선방안 등과 관련한 공동연구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함.
  
- 한국학센터 프로그램 참관 및 네트워크 형성
  - 현재 한국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전파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
  - 최근 한국학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주 한국학의 지속가능한 가치: 디아스포라 한인과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전망 (Sustainable Values for Korean Studies in the Americas: Korean Diaspora and the Prospects for Peace, Prosperity, and Unity of the Korean Peninsula)]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프로젝트의 전문가들과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함. 향후 연구원과 하와이 한국학센터, 하와이 대학 로스쿨 등과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5. 주요 일정 및 활동 내역

일정	주요 활동 내용
2022. 12. 12.	○ 인천국제공항 출발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국제공항 도착
2022. 12.13. - 12.16.	○ 한국학센터 방문 ○ 백태웅 센터장 면담 : 연구발표주제 선정
2023. 12. 22.	○ 한국학센터 세미나 발표 및 토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범죄피해 및 범죄 발생 실태 및 문제점
2022. 12. 20. - 2023. 1.6.	○ 한국학센터 주요 활동 및 주요 프로그램 참관 ([미주 한국학의 지속가능한 가치] 등)
2023. 1. 9.-1.16.	○ 공동연구 방안 협의 - 주요 관심 주제 등 논의(백태웅 센터장)
2023. 1. 17.-1.18.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국제공항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 II. 해외 단기연수교육 활동 주요 내용

### 1. 한국학센터(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방문 및 백태웅 센터장 면담(2022. 12.13. - 12.16.)

- 한국학센터는 마노아 하와이 대학교에 1972년 설립되어 한국 연구를 위한 자원을 지원, 조정하고 개발하여 왔음. 이 센터에서는 인류학, 건축, 예술, 아시아 연구, 커뮤니케이션, 문예 창작, 경제학, 민족 음악학, 교육, 지리, 역사, 언어,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을 활용하여 한국연구에 대한 학제 연구를 촉진하고 다양한 문화 간 접근을 지원하고 있음. 이 센터는 외국에 존재하는 교육기관 중에서 한국 학자와 자원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 내 최고의 한국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학센터와의 교류와 협력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확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이 될 수 있음. 특히 그동안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성과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이를 위하여 한국학센터 백태웅 센터장과 면담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의 성과를 세미나 발표를 통해 확산하기로 하고, 2022년 12월 22일 한국학센터 백태웅 센터장 연구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협의함.
- 그동안 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발간물,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9), [북한이탈주민의 범의식 실태와 준범의식 제고 방안 연구](최영신 외, 2017),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장준오 외, 2010),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I)-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최영신 외, 2010)를 한국학센터 자료실에 기증함.





## 2. 북한이탈주민 범의식 관련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1) 일시: 2022년 12월 22일(목) 14:00-15:00, 한국학센터 센터장실
- 2) 주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경험 비교(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citizens in Illegal Activities and Criminal Damages )
- 3) 참석자: 최영신 선임연구위원, 백태웅 센터장, 홍승현 연구원, 이해인·Kortne Oshiro-Chin 조교

### 4) 주요 내용

#### (1) 북한이탈주민의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발생 범죄유형

가.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발생 범죄 유형의 선정

#### □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 유형의 선정과정

-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담과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선행연구([범치주의 확립을 위한 국민법교육 프로그램(II)], 최영신 외, 2010)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다발하는 범죄피해와 발생 범죄의 유형, 그리고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발하는 여러 범법행위 유형을 확정하고, 관련 범지식 문항을 개발함.

#### □ 북한이탈주민에게 다발하는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 유형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나 범죄발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은 사기, 폭행·상해(성폭력 포함), 가정폭력, 마약범죄, 성매매이다. 이 중에서 사기, 폭행·상해(성폭력 포함), 가정폭력범죄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와 범죄 발생이 모두 많은 유형이며, 마약범죄와 성매매 범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많이 저지르는

범죄유형임. 각 범죄유형과 관련된 법지식이 많지만, 이 중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피해나 범죄발생을 많이 경험하는 세부 유형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함.

(2)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발생 범죄유형 관련 법지식 수준

<표 1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발생 범죄유형 관련 법지식 수준

구분	관련 문항	평균*
사기	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0.67
	② 가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0.80
	③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	0.93
폭행/상해 (성폭력 포함)	④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0.31
	② 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0.66
	③ 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0.67
	① 개인 간의 싸움을 처벌 받지 않는다.	0.68
마약	③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0.44
	① 한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	0.85
	②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	0.87
성매매	① 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	0.76
	②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0.91
사기	④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3.57
폭행/상해 (성폭력 포함)	⑤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다.	3.33
가정폭력	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	3.28
	②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3.42
	③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3.76

\*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가 정답인 경우 1점을, 오답인 경우 -1점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 문항의 평균값이 1.0이 넘는 경우는 문항에 대한 태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단계로 측정하여 점수화하였으며, 해당 문항의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함.

(3)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법지식 차이

가. 두 집단의 범죄 피해 및 범죄 발생 관련 법지식 차이

□ 북한이탈주민은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법지식 수준이 낮은 상태임.

○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문항은 (사기피해 및 가해)③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는 문항 1개 뿐임.

○ 12개 문항에서는 일반 국민이 북한이탈주민보다 법지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남, 8개 문항은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나.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이 현저하기 낮은 범죄유형

□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

-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 12개의 문항 중에서 특히 더 큰 차이를 보인 것은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 문항임.
-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 문항에는 국선변호인제도의 대한 이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인식,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인식,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는데, 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은 일반 국민보다 현저하게 낮음.

□ 폭행 및 상해, 가정폭력, 마약범죄

- 폭행 및 상해 관련 5개 문항 중에서 ‘①개인 간의 싸움을 처벌 받지 않는다, ②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④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⑤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다’는 4개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국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남.
- 가정폭력 관련 문항, ‘①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 ②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의 2개 문항, 그리고 마약범죄 관련 문항, (마약범죄)‘③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 준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이 일반 국민보다 낮았음.

(4)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가.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전반에 대한 평가

- 북한이탈주민은 일반국민과 비교하며 관련 법지식 수준이 현저하게 낮음.
- 특히 형사사법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상식이 가장 취약하고, 이외에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와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도 일반 국민과 큰 격차를 보임.
- 상대적으로 사기범죄와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에서는 세부 문항별로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절반 정도임

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이 낮은 이유

- 형사사법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상식(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구치소와 교도소의 구분, 국선변호인 제도의 이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
  - 해당 법적 지식은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을 통해 개별 권력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비로소 습득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임.
-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범죄 관련 법지식이 낮은 이유
  - ‘개인 간의 싸움은 처벌받지 않는다’ 및 ‘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

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지식이 낮은 것은 북한사회에서 개인 간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사적(私的)으로 해결하는 데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범지식이 낮은 이유

- 북한사회는 남한 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부장권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민감도나 범지식이 부족함. 이는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 혹은 사적 분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citizens in Illegal Activities and Criminal Damages**

This study is to verify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citizens in illegal activities and criminal damages. To do this, this paper utilizes survey data on 800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over 19 and have stay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one year and 1004 South Korean citizens who are over the age of 19 and resi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y were selected by using quota sampling method according to area-, sex-, and age-specific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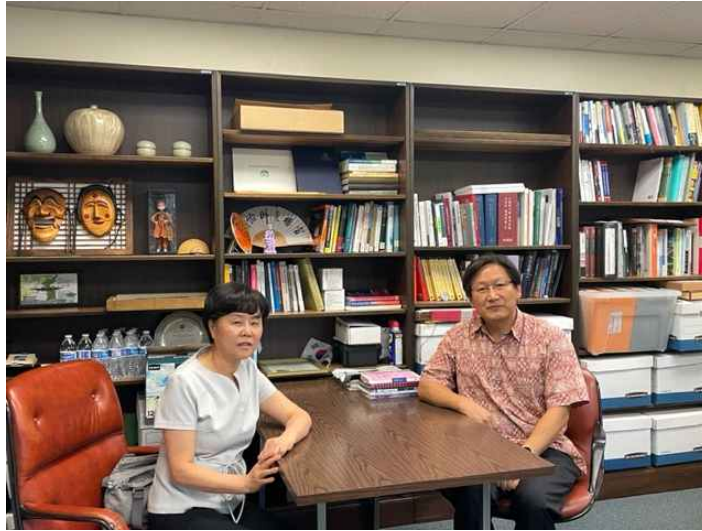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male groups in both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citizens reported to have a similar level of appearances to the police station due to illegal activities, experiences of going on trial, and criminal damages. But North Korean escapees demonstrated a remarkably higher degree in experiences of situations in which legal assistance was needed.

The female groups in both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citizens, compared to their male counterparts, showed much lower levels in involvement of illegal activities and criminal damages. Also, another noteworthy is that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lower rate compared to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in experiences of criminal damage, as well as experiences of situations in which legal assistance was needed. They were found to suffer a remarkably lower rate of criminal damages, which seems to attribute to the fact that many of them are recipients of the assistance for basic living cost and their living area is limited only to their neighborhoods.

In sum up, illegal activitie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refugees can be assessed to be stable compared with their South Korean citizen. And North Korean escapees were found to have a lower rate of experiences in which



legal assistance was needed, it might be because they live within the limit of their residences and job market.



### 3. 한국학센터(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주요 사업 및 주요 프로그램 참관

#### 1) 한국학센터의 목표

- 한국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 교수진의 자질과 성과 향상
- 한국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학업 프로그램 개발
- 한국에 대한 연구와 출판물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연구에 종사하는 하와이 커뮤니티 및 기타 기관, 조직 및 개인 학자와 대학의 자원 조정.
- 하와이대학교에 있는 동안 학생들이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지원.
- 북한연구 현황을 평가하는 데 전념하는 회의 및 워크숍 개최
- 한국어 중급 및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선;
- 새로운 연구 후원 및 센터의 출판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물 확산 등
- 센터, 하와이 대학교, 한국의 기관 및 기업 간의 연계 구축 등

#### 2) 아카데미

- 한국학센터는 학위를 직접 수여하지 않음. 그 임무는 하와이 대학교 교육 시스템 내에서 한국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 "한국학" 자체에는 학위가 없지만 약 24개 분야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함. 커리큘럼, 학위 논문 및 학위 논문에서 전체 또는 부분 한국어 구성 요소가 있는 학위. 아래 목록은 가장 일반적인 연구 분야를 제시한 것임.

아시아학(한국): BA, MA/ 한국어: BA, MA 및 Ph.D. / 한국문학: 석·박사 / 연혁(한국 중심): MA 및 Ph.D./ 정치학(한국 초점): 석사 및 박사./ 언어학(한국어 중심): MA 및 Ph.D. / 제2언어 연구(한국어 중심): MA 및 Ph.D./ 사회학(한국 포커스): MA 및 Ph.D. / 민족음악학(한국 중심): MA 및 Ph.D. / 무용(한국중심): 석사 및 박사 / 경제학(한국 중심): MA 및 Ph.D. / 도시 및 지역 계획(한국 중심): 석사 및 박사.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과학(한국 초점): MA 및 Ph.D. /연설 (한국 초점): MA / 학력(한국중심): MA 및 Ph.D. /경영학(한국 중심): MA 및 Ph.

### 3) 전략연구소 사업(Strategic Research Institute Projects)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한국학센터는 2020년 7월 8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2020년 한국학 전략연구소 지원사업(2020 Strategic Research Institute Program for Korean Studies)의 수혜자로 선정되었음.

- 사업명: 미주 한국학의 지속가능한 가치: 한인 디아스포라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전망( Sustainable Values for Korean Studies in the Americas: Korean Diaspora and the Prospects for Peace, Prosperity, and Unity of the Korean Peninsula)
- 주요 내용: 하와이의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미국, 캐나다 및 남미를 포괄하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센터는 남한, 북한, 유럽 및 아시아를 아우르는 다양한 국제 활동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학과 미국의 다른 학문 간의 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가상 공간과 직접적인 인간 및 물리적 세계 모두에서 운영 및 성과를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및 소스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4) '하와이 한인 여성 이민 지도자들' 심포지엄(Symposium - Korean Women Immigrant Leaders in Hawai'i)

하와이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학 센터는 '심포지엄: 하와이 한인 여성 이민 지도자'를 개최함.

- 초기 한인 사회는 교육, 사회 사업 및 한국 문화 홍보 분야의 리더였던 여러 여성에 의해 문화적으로 풍요로웠음.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식은 이들 지도자들의 업적을 알 수 있는 적절한 기회임. 심포지엄에는 노디 김(손), 황하수, 한라배 엄, 전윤희 등 4명의 한국 여성 지도자들이 참석함.

#### 4. 공동연구 방안 협의

향후 한국학센터가 미국 내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거나 백태웅 센터장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다학문간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여러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협의함.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법의식의 특성과 차이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형성된 법의식의 특성과 차이, 그리고 사회주의체제에서 형성된 법의식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체제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그들만의 독특한 법의식의 특성 파악 등

2) 범죄예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 분석 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이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교육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은 남·북한사회의 법문화 차이에 근거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를 내면화하는 기회를 제공함.

3)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관련

- 하나원 법교육 이외에 지역적응단계 법교육의 강화 필요성

4) 법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방안 관련 연구

-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약한 법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
- 정보화 교육역량의 강화를 통한 법교육 역량 강화

5)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

6) 이주노동자 및 재외동포의 인권보호 방안 모색

- 국제적인 노동력 이주 현상의 하나로써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및 재외 동포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현재 외국인 체류 관련 미비된 법률적, 정책적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이 공유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